

광주 광산구 모 의원 갑질행위 논란

금고 선정에 항의, 구청장 면담 요구하며 소란 지구당에 민원 접수... 지난해 같은 행위로 물의

광주 광산구의회 모 의원이 광산구 금고 선정에 항의하며 구청장실에서 소란을 피워 구설수에 올랐다.

1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산구청장실 문 앞에서 광산구의회 조모 의원이 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 김삼호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모습이 주민에 의해 포착됐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은 광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서도 말 한 마디 못했

던 자신이 부끄럽다"며 해당 의원의 행동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 한편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과 지구당에도 조의원의 갑질 폭언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도 당 차원에서 사건 진위조사를 위해 지난 9일 시당조직국장을 포함 3명이 광산구청과 의회, 기타 참고인 등을 방문해 조사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한 답변은 어렵다"면서 "해당 의원

의 갑질 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절차를 걸쳐 11월 이달 중에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처리될 것이다"만 답했다.

조모 의원은 지난 민선 5-6기 시절에도 공직자들에게 방대한 자료요구와 여직원에게 모독성 발언과 폭언 등 갑질한 전력으로 상당한 마찰을 겪어온 사실이 있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의원은 지난해 7월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의원 신분을 이용해 인격 모독과 언어폭력을 가해 피해 여직원의 가족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의회와 노조가 갑질 행위에 대책 마련을 위해 15명의 의원대해 직권남용과 갑질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차원

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살태조사에 설문(전수) 조사했다.

또한 조모 의원이 구금고 선정과 관련에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민선 5-6기 구의회에서 능력이 장기적으로 구금고로 선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 조 의원이 민선 7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능력에 대해 유희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해당 의원이 능력으로부터 저급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모 의원은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훈석 기자 ghs@

"졸음 운항 사고" 화물선 선장 항소심 중형 징역 7년... 피로누적 상태 운항, 어선 충돌로 6명 사망·실종

선원 승선 정원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졸음 운항을 하다가 어선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화물선 선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장 부장판사)는 졸음 운항을 하다가 선박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 선박과피, 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원보다 적고 항해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을 태우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레이더 등 항해 장비 확인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냈다"며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 36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8.4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5t급 어선 2007 연흥호(승선원 6명)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충돌 사고로 어선에 적재된 경우 2천 t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와 유통업자 박모(45)씨 부품을 받고 화물선에 신원 미상 납성을 승선시켜 중국으로 불법 출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탄자니아 국적 498t급 냉동 운반선 상유에호 선장인 김씨는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최저정원 7명에 미달하는 5명(한국인 2명·인도네시아인 3명)만 태운 채 지난 4월 10일 부산 다대포항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했다.

그는 하루 20시간 이상 당직 근무를 하면서 자동 조타 상태로 설정한 뒤 졸면서 항해했으며 사고 전 관제해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해경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감경 조사에서 "관제 구역이 바뀌면 교신 채널을 변경해야 하는데 바꾸지 않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을 못 들었다"며 "사고 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헤어진 전 부인에 앙심 품고 동거남에 둔기 휘두른 50대

화순경찰서는 지난 10일 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부인 집을 찾아가다가 동거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27분께 화순군 B(53)씨 집에 찾아가 B씨 머리를 둔기로 한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여년 전 이혼한 C(51)씨를 수차례 미행해 주거지를 찾아내 C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보자 머리 가져간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경찰은 C씨와 그 가족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어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호남대 '호지연 몸튼튼 마음튼튼' 진행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6개 학과는 10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센터 관계자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총 300여명과 함께 다양한 놀이와 학과 프로그램 체험하는 '호지연 몸튼튼 마음튼튼'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경찰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버스기사 입에 교통카드 넣고 폭행 70대 집유

시내버스 기사의 입에 교통카드를 넣고 폭행한 7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온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8시에 광주 북구 운암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A(56)씨의 목살을 잡고 교통카드를 입속에 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 광산구 모아파트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김씨는 삿대질을 하며 A씨 얼굴을 밀어 폭행은 했으나 카드를 입에 넣거나 목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버스 내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시 싱크홀 증가율 전국평균 6배 이상

5년간 싱크홀 105건... 노후 하수관이 주원인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싱크홀(지반 침하로 인한 동공)'이 전국 평균 증가 폭의 6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이 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 광주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41건으로 지난해 전체 21건보다 95%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4%보다 6.7배에 달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1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 광산구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20건, 북구 14건, 남구 13건, 서구 9건 등이다.

올해 발생 원인별로는 하수관 문제로 파악된 건수가 36건(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5건 중 80건(76%)이 하수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된 관

로는 345km에 달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천251km에 이른다.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전체 4천252km 중 38%를 차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하수관이 원인으로 지목된 싱크홀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교체 시급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도로 위의 폭탄으로 불리는 싱크홀은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노후하수관로 17km 1천531개소에 대해 260억의 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엽 기자

50대 취객 병원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난동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의료진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목포경찰서는 A(58)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분께 목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의사(45) 얼굴을 때리고 간호사(25)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술을 과하게 마셔 응급실로 실려 온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진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깨어나면 범행 동기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